



해외 양계 뉴스

동유럽 양계산업 회복 움직임

유럽인구는 전체 7억3천만명에 달한다. 그중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과 비회원국(30개국)의 인구비율은 50:50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회원국들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생산량은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란생산량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EU의 비회원국 중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인구는 2억6천만명으로 비회원국 중 3/4을 차지하고 있다.

양계산업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꾸준히 발전해온데 반해 '90년 이후 전쟁으로 일관해온 동유럽국들의 양계산업은 급격한 침체기를 맞이하여왔다.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계산물의 90%는 9개국으로부터 집중 생산될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데 '90년 이후 생산된 계란은 지난해까지 180만톤(3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러시아에서 1백만톤이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산업은 채란산업보다 더 큰 수난을 겪어왔는데 '92년 이후 계란이 25% 줄어든 반면 닭고기는 무려 44%가 줄어들었다. 러시아에서 124개이던 도계장이 40여개 이상 도산한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미농무성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닭고기 생산비도 상승하여 러시아의 경우 kg당 2,150원에서 2,5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형가리의 경우 '90년 이후 감소되던 양계산물이 '95년부터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무역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형가리는 2005년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PI)

덴마크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피해 증가

'96년 덴마크의 닭고기에서 6~8%가 살모넬라에 감염이 되었으며 살모넬라로 인한 중독증세 중 2~7%가 가금육에 의한 것으로 Agra Europe 보고서에서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캄필로박

터로 인한 피해도 5년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움 PT4 타입이 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종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DT104 타입이 일반적인 음식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에서는 3년전부터 이에대한 대책을 위해 살처분 등 강경책을 펴고 있지만 생산자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낮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로인해 지난해 덴마크의 가금육생산은 2%가 줄어 165,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했다.(PI)

일본

양계산물 가계소비 감소, 가공소비 증가

일본의 농림수산성식육계란과에서 발표한 '96년도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구성비를 보면 닭고기의 경우 가계소비가 30%, 가공용소비가 11%, 업무·외식용소비가 59%로 나타났으며, 계란의 경우 가계소비가 53% 업무·가공용 소비가 47%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비가 줄고 가공용소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닭고기는 '75년도에 가계소비가 52%를 차지하던 것이 '80년도에는 40%, '90년도에 32%로 낮아진 반면 가공용소비와 업무·외식용소비는 '75년에 3%, 45%이던 것이 '96년에는 11%, 59%로 각각 증가되었다. 계란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계소비의 경우 '75년도에 70%, 90년도에 60%대를 기록하다 업무·가공용 소비가 현저한 증가를 보이면서 '96년도에는 53%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일본 국민은 '96년도 하루평균 약 1개(55.3g)의 계란

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소비가 29.5g, 업무·가공용이 25.8g으로 나타났다.(鷄鳴新聞)

미국

계란 산업 성장에 대한 걱정

미국에서 발행되는 'Egg Economics Update'지에 의하면 만약 미국의 계란산업이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98년 1월에 계란생산이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는 '81년 이후부터 1년에 1천만수의 산란계가 증가되어 왔으며 이를 계란으로 환산하면 1주에 200대의 트럭분량이 생산되어 1년에 25억개의 계란이 증가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오하이오주와 아이오와주의 산란계생산 증가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94년부터 3년동안 오하이오주는 520만수, 아이오와주는 660만수의 산란계가 증가되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잉여량을 가공산업에 힘을 기울여 난분 등을 생산, 수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차후 계속적으로 성장될 경우 과잉에 따른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PI)

아틀란타 국제 양계박람회 개최

미국에서 해마다 연초에 개최되는 아틀란타 양계박람회가 남부 가금 및 계란협회 주최로 오는 1월 21(수)~23(금)까지 3일간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 조지아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계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양계업의 다양한 정보가 소개될 예정에 있다.(PI)